立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길림신문
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吉林朝鲜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5 년 6 월
5
목요일
음력 5 월 10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鲜文报　제 6039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연변 8 개 지역이 함께 엮어낸 문화의 아름다운 그림

▲ 5 월 30 일 오후 6 시에 훈춘시 실크로드 발해고진에서 개막된 연변 '단오 · 6.1 절 맞이' 주제활동 개막식 현장
/ 김영화 김가혜 기자

단오절이 '6.1'아동절과 만났을 때 연변주 8 개 현시들에서는 민속 체험, 무형문화유산 전승, 가족간의 교류를 융합한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들이 펼쳐졌다. 이런 행사들은 여러 민족 군중들로 하여금 전통 명절을 보내면서 문화의 맥박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오절을 앞두고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훈춘시정부가 주최한 2025 연변주 '단오절 경축, 6.1 아동절 맞이' 주제 행사가 훈춘시 실크로드 발해고진에서 개막되였다.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해고진에 모여 노래와 춤을 감상하고 음식을 맛보고 화려한 복장을 구경하고 루각에 올라 발해고진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다. 명절 기간 동안 연변은 15 가지의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연학실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전 지역 몰입식 축제 체험을 선사했다.

연길공룡박물관에서는 30 여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연학활동 속에서 공룡세계를 체험했다. 거대한 공룡 뼈 화석 앞에서 아이들은 해설원의 설명을 들으며 때로는 멈춰서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공룡 행성 려행' 몰입형 체험에서는 어린이들이 '고생물 탐험가'로 변신해 체계적으로 공룡문화 지식을 습득했다. "이번 연학 활동에서 지식도 얻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여 매우 의미 있었다."고 장춘에서 온 한 관광객은 말했다.

돈화시 민주가두 림원사회구역 행사 현장에서는 멋진 노래와 춤이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다. 민족복장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긴 소매를 휘날리며 유연한 춤사위와 아름다운 노래로 연변 민족문화를 표현했다. 쫑즈빚기대회에서는 '능수'들이 잎을 펴고 쌀을 넣고 묶는 동작을 숙련되게 보여주었고 초보자들은 허심히 따라배웠다. 여러 민족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류를 통해 감정을 키웠다. 현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룡정시당위 통전부(민족종교국)는 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안민가두 길명사회구역과 협력해 수원지 광장에서 '다채로운 연변에서 쫑즈의 정을 나누다'는 내용의 문화관광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함께 한상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한명절을 쇠는' 형식으로 여러 민족 군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았다. 재미있는 지식 퀴즈 등의 프로그람을 통해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며 명절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화룡시 문화가두 문성사회구역의 쫑즈빚기 행사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다. 한국에서 고향을 찾은 김녀사는 이웃의 가르침으로 쫑즈를 성공적으로 빚어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자주 참여해 전통문화의 전승자와 전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의 변화를 외지 친구들에게 알려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고 호소했다.

도문시 '중화민족 한가족 · 천리만리 쫑즈의 정' 단오절 계렬 행사에는 수만명의 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해 체험했다. '쫑즈의 정 단오, 함께 모여 즐기다'를 주제로 한 이웃축제에는 특색 음식 시식, 무형문화유산 수공 체험, 재미있는 유희와 오락, '도문인상' 장터 등 네가지 주제구역이 마련되였다. 찰떡, 김치 등 음식들과 도문시의 특산품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처음으로 천명이 함께하는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관광객 장붕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아이가 공연도 보고 조선족 음식도 맛보아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였어요."라고 말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조선족민속촌에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쑥떡을 만들고 전통 게임을 즐기며 독특한 단오 풍습을 체험했다. 남북 쫑즈빚기 대결에서는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현지에서 갓 딴 종엽(柊叶)으로 북방식 쫑즈를 싸는 법을 손수 가르쳤다. 팥과 대추를 넣어 싼 쫑즈는 향기가 가득했다. 조선족 아주머니들은 또한 쑥을 넣은 떡을 준비했다. 찹쌀가루에 쑥을 버무려 익힌 후 콩가루에 찍어 먹으니 부드럽고 달콤했는데 액운을 막고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왕청현 대천가두 남산사회구역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한 쫑즈의 정, 함께 명절을 축하하다' 및 '다채로운 연변에서 쫑즈의 정을 나누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해 군중들이 문화 혜택 행사 속에서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단오절과 '6.1'아동절이 교차된 이번 휴가 기간, 연변에서는 문화를 매개로 장백산 아래, 두만강변에서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우며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유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엮어냈으며 이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했다.

/ 길림일보

연변 8,458 명 수험생 올해 대학입시 참가

연변주에서는 8,458 명 수험생들이 올해 일반대학교 학생모집시험에 참가하게 된다. 그중 력사류 수험생이 2,883 명, 물리류 수험생이 5,575 명이고 한어로 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이 5,575 명, 민족언어로 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이 1,566 명이다.

연변주에는 총 8 개 시험구, 13 개 시험장소(연길 3 개, 돈화 3 개, 훈춘 2 개, 도문, 룡정, 화룡, 왕청, 안도 각 1 개), 342 개 시험장이 설치되며 그외에 8 개 예비시험장소와 33 개 예비시험장이 있다.

/ 연변주교육국

심양 – 장백산 고속철도 개통 카운트다운… 1.5 시간 만에 도착

중국철도심양국집단회사는 6 월 1 일, 국가 '제 14 차 5 개년' 계획의 중점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인 심양 – 장백산 고속철도(沈白高铁)의 련동 시험이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백고속철도의 개통이 림박했음을 보여준다.

▨ 430 키로메터 구간, 350 키로메터 / 시 속도로 동북지역 련결

심백고속철도는 심양북역을 출발해 심양시, 무순시, 통화시, 백산시,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5 개 지구급 시와 주를 거쳐 장백산역까지 총거리 약 430 키로메터를 달린다. 최고 설계 속도는 시속 350 키로메터, 총 10 개의 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 교통 시간 대폭 단축… 심양→장백산 1.5 시간, 북경→장백산 4 시간

현재 심양에서 장백산까지는 약 3 시간 26 분이 소요되지만 고속철도 개통후에는 약 1 시간 30 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북경에서 장백산까지는 기존 6 시간 13 분에서 4 시간 정도로 줄어들어 동북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료녕성 · 길림성 교통 기초시설 혁신

이번 고속철도 개통으로 료녕성은 모든 지구급시(地级市)에 고속철도가 련결되는 '시시통고속철'(市市通高铁)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길림성 역시 통화시와 백산시가 고속철도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교통 기초시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 연변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이번 고속철도 개통으로 심양, 북경 등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 문화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백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가 예상되며 연변의 축구 등 스포츠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길림일보

단오절 련휴 기간 길림성 관광 활기

6 월 2 일, 비저(飞猪)가 발표한 〈2025 단오절 련휴 려행 속보〉에 따르면 1 인당 관광 소비가 작년의 기초우에서 계속 증가했으며 입장권, 캠핑, 전세빠스관광 등을 포함한 '라이트휴가'(轻度假)형 상품의 1 인당 소비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단오절 련휴 기간 길림성의 관광은 계속해서 활기를 띠였다. 장춘, 연변, 길림, 통화, 사평은 길림성에서 관광 예약 인기 도시로 등극했다.

장백산 북쪽비탈관광지, 만과송화호휴양지, 장춘영화세기성, 장춘동식물공원, 장춘영화제작소옛터박물관 등은 길림성의 인기 관광지였다.

한편 산동, 상해, 절강, 강소, 광동 등은 길림성 관광의 최대 관광객 류입지였다.

/ 인민넷

5 월 29 일 오전, 중차(中车) 장춘궤도객차주식유한회사가 개발한 신에너지 저수송량 궤도교통 장비인 '경춘호'(氢春号)가 장춘에서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렬차는 수소충전후 항속거리가 320 키로메터 이상에 달하며 키로메터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1.5kWh 에 불과하다. 료해에 따르면 '경춘호' 렬차는 '친환경화 + 저비용 + 문화 IP'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시했다. 이는 신질생산력이 지역 문화관광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생동한 실천인바 우리 나라 저수송량 궤도교통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길림일보

길림성, '521' 출산 보장 새 조치 출범

최근 길림성 의료보장부문은 '521' 출산 보장 써비스 조치를 혁신적으로 출범하여 '5 가지 전문', '2 가지 면제', '1 가지 실시간' 전 과정 써비스 모식을 통해 보험에 참가한 군중들의 출산 의료보장 체험을 확실하게 향상시키고 길림성이 출산우호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전면적으로 조력했다.

편민 써비스에 초점을 맞춰 '5 가지 전문'은 출산보험 보장망을 구축한다. 전 성 20 개 전문 산부인과병원에 의료보장 써비스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1:1 써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결산, 신생아 보험 참가, 출산보조금 수령 등 업무를 통합하여 임산부가 퇴원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여러가지 업무를 일괄식으로 '전문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외 12393 의료보험 고객상담 전화에 출산보험 '전용라인'을 설치하여 출산보험 관련 문제에 해답한다. 길림성 의료보장부문은 틱톡, 콰이써우 등 뉴미디어 플래트홈에 지식 '전문강연'을 개설하여 진실한 사례로 복잡한 정책을 리해하기 쉽게 하고 정책 해석을 더욱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한다. 위챗 공식계정, 미니앱 등 경로에 출산보험정책문제 '전문란'을 개설하여 빈도가 높은 질문에 집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해답하여 정책 해독 '무휴'를 실현한다.

'2 가지 감면'은 '신청면제 즉시 향유'와 '방문면제 즉시 향유'를 의미하는바 출산보험이 더욱 빠르고 더욱 효률적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성내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은 타지역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성내 가까운 출산 지정 의료기구에서 출산전 검사와 출산 입원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정산할 때 지정 의료기구는 출산 류형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신청이 없이도 출산 등록 '신청면제 즉시 향유' 써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동시에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성내 출산 지정 의료기구에서 결산을 완성하면 의료보장취급기구에 가서 출산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지정 의료기구에서 신청을 발기하고 의료보장취급기구가 정보를 확인한 후 출산보조금을 직접 개인에게 발급하여 '방문면제 즉시 향유'를 실현한다.

'1 가지 실시간' 써비스는 구역 제한을 타파하고 전 성 통일 의료보장 정산 표준과 규범을 건립하여 보험에 참가한 임산부가 성내 임의의 출산 지정 의료기구에서 퇴원하여 정산할 때 의료보장 전자증명 혹은 의료보장카드만 제출하면 정산 시스템이 보험참가지 의료보장정책에 따라 빠르게 취급 금액을 정산하여 출산 의료비 실시간 정산을 실현함으로써 타지역에서 출산하는 임산부에 큰 편의를 제공하고 타지역에서의 의료비 청구의 고충을 해결하게 된다.

/ 길림일보